

1990년대의 흐름들 – 4

머리말 – 응답하라, 1990 – 7

1 신인류의 출현: 뼈째에서 오렌지족까지

58358282545119의 암호를 풀면? – 뼈째의 시대 – 14

‘님’이라는 호칭이 만든 연대의 공간 – PC 통신 – 22

가왕도 그곳에서 슬픔을 토해냈네 – 노래방의 발홍 – 30

“나는 한국 사람 없는 나라를 가보고 싶었어” – 역마살의 시대 – 38

범인들이 죄다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– 휴대전화의 등장 – 46

압구정서 ‘야~타!’ 외치던 오렌지족 – 신인류의 출현 – 54

2 그때 그 사건: 휴거 소동에서 마광수까지

낙동강의 폐놀은 이제 대학가로 흐르는가 – 두산 폐놀 사태 – 64

“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습니다” – 김부남 사건 – 72

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증오하다 – 김보은·김진관 사건 – 80

오직 나방 한 마리만이 ‘휴거’됐다 – 휴거 소동 – 88

“당신들은 안 하고 살아?” – 마광수 교수 구속 – 96

천대와 모멸은 끝내 선상반란 비극으로 – ‘조선족’의 유입 – 104

‘악마’처럼 보였던 그도 ‘사람’이었다 – 마지막 사형수, 김용제 – 112

3 우째 이런 일이: 전세 대란에서 지존파 범죄까지

“아빠! 우린 안 죽는 거지?” — ‘전세 대란’과 아이들의 죽음 — 122

아, 그건 성희롱이야! — 우 조교 사건 — 130

학교에서 우째 이런 일이 — 상문고 비리 — 138

상대적 빈곤이 만든 괴물들 — 지존파와 증오 범죄 — 146

가을이라 무사하고 바다인들 무탈했으랴 — 대참사의 소용돌이 — 154

그들은 ‘날라리’로 몰려 두 번 죽었다 — 인현동 호프집 대참사 — 162

4 아득한 희망의 세월: 남북 단일팀에서 탈북자의 등장까지

강렬하게 달콤했으나 쓰디쓴 소태로 끝나다 — 남북 단일팀의 추억 — 172

“전쟁은 안 됩니다” — 박영수 단장의 불바다 발언 — 180

김일성이 죽었다, 김일성 주석께서 돌아가셨다 — 남북 정상회담 발표 — 188

그해 가을의 ‘기묘한 전쟁’ — 무장간첩 침투 사건 — 196

“정말 그렇게 굶어죽느냐”고 묻지 마시오 — 탈북자의 등장 — 204

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 — ‘통일 할아버지’ 정주영 — 212

5 혹독한 투쟁의 시대: 분신정국에서 IMF 사태까지

- 불꽃은 뜨거웠으나, 고립의 벽은 높아만 갔다 — 1991년 분신정국 — 222
그들처럼 누군가 또 양심의 성냥을 굿겠지 — 양심선언 — 230
의장님만 믿고 또래 젊은이를 고문했는가 — 한총련과 학생운동의 몰락 — 238
“니 전라도가?” 유령처럼 떠도는 불멸의 낙인 — 김대중과 호남 평화 — 246
그의 미친 듯한 깜짝쇼가 그리워라 — YS 천하 — 254
돌반지는 따뜻했지만 분노는 미지근했다 — 금 모으기 운동 — 262

6 마지막 희망을 추억하며: 김종학에서 김광석까지

- 요즘 KBS 정말 재미있어요 — KBS 노조 파업 — 272
금기 깐 독기가 만든 드라마 최초의 키스신 — 김종학 PD — 280
헬리콥터를 띄워 <파업전야>를 막아라 — 한국 영화의 부활(상) — 288
<블루 시절>에서 <서편제>까지 — 한국 영화의 부활(하) — 296
양말 벗은 새하얀 발과 이단옆차기의 전율 — 박세리와 박찬호 — 304
일상과 추억 사이에 쌓여있는 노래 — 가객 김광석 — 312